

식민지 시기 계급주의 문학 내 여성 폭력의 표상 한계

—강경애 소설을 중심으로

이 경 립*

요약

이 논문은 식민지 시기 계급주의 표상체계 안에서 여성의 폭력이 과소표상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여성 폭력 표상의 한계와 의의를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실제 여성의 폭력의 존재 양상과 이를 표상하는 체계 사이의 불균형을 검토한 후, 계급주의 안에서 여성의 폭력이 표상되는 전형적 형식과 이로부터 벗어나는 형식을 강경애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계급주의 표상체계 안에서 전형적으로 폭력의 주체로 표상되는 것은 젊고 강건한 남성 프롤레타리아다. 그러나 이러한 표상은 여성이 폭력의 주체로 병존했던 현실과 불균형을 보인다. 예시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1920년대 초 노동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투쟁의 주역으로 가시화되었던 바 있다. 그러나 계급주의 문학 안에서 이들의 '투사'로서의 존재는 지워지거나, '희생양'으로 치우쳐 표상되는 경향이 컸다. 이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리얼리즘의 결과가 아니라, 계급주의 표상체계의 남성 중심성이 드러난 징후로 읽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표상체계가 폭력을 다루는 전형적 도식은 폭력을 성별에 따라 분업화하는 것이다. 남성이 폭력의 주체로서 투쟁에 나설 때 여성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폭력의 '보조자'로 표상되곤 했다.

여성의 폭력은 계급적 갈등에 기인했을 때에도 계급주의적 맥락에서 명료한 의미를 획득하기 힘든 것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여성의 폭력은 프롤레타리아 게발트로 용이하게 수렴될 수 없는 것처럼 표상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계에 직면하여, 『소금』은 여성이 가족/가정을 상실하면서 ‘여성성’을 잃고 ‘계급성’을 자각해나가는 과정을 그려 보였다. 이는 여성을 프롤레타리아 폭력의 주체로 세우면서, 여성의 폭력을 프롤레타리아 계발트로 잔여 없이 수렴시키는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제어: 폭력, 여성, 계급, 계급주의, 사회주의, 여성성, 계급성, 프롤레타리아

1. 계급주의 문학과 폭력의 구조
2. 여성 폭력의 과소표상과 여성의 주체성의 과소표상
3. 여성의 폭력을 다루는 계급주의적 형식들
4. 맺으며

1. 계급주의 문학과 폭력의 구조

계급주의(적) 문학에서 폭력은 가장 중요한 주제다. 계급주의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계급갈등—의 존재가 폭력을 통해 확인되며, 또한 이 갈등이 폭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계급주의 문학에서 폭력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동시에 이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능력을 가시화하는 장치다. 독자는 이 폭력들을 계급주의 서사 논리 안에서 이해함으로써 체제의 압력을 체감하고 혁명(운동)의 필연성에 공감하게 된다.

계급주의 문학 내 폭력 표상은 자본주의의 폭력과 프롤레타리아의 폭력이라는 이항(二項)에 초점을 맞춘다. 지젝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주관적(subjective) 폭력, 즉 명확히 식별 가능한 개별 행위자가 저지르는 폭력과 객관적(objective) 폭력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바 있다. 이때 객관적 폭력은 언어를 통해 구현되는 상징적(symbolic) 폭력과 구조적

(systemic) 폭력으로 다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¹⁾ 이 논의를 참조하여 계급주의 문학이 다루는 폭력의 구조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가 인간과 세계에 행사하는 객관적 폭력이다.²⁾ 자본주의의 객관적 폭력은 필연적으로 그 최전선에 있는 프롤레타리아에게 집약된다. 그리고 이처럼 선행하는 폭력의 필연적 결과로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이 발생한다. 이 인과관계가 프롤레타리아의 폭력에 '대항폭력'으로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급주의 문학은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의 필연성과 필수성을 문학적 현실(reality)을 통해 설득함으로써³⁾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라는 실재(the Real)에 인간이 변증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뚫는 상징적 폭력을 행사한다.⁴⁾

한국 근대 계급문학에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은 다음과 같은 '진보'를 통과하는, 즉 계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먼저 비이성적 폭발처럼 나타나는 주관적 폭력—살인, 방화 등—을 신경향과 소설을 통해 불

-
- 1)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현우 외 역, 난장이, 2011, 24면.
 - 2) 인간과 세계를 자본주의에 적합한 것으로 변형하는 이러한 폭력을 발리바르는 '극단적 폭력'(에티엔 발리바르, 『폭력과 시민다움』, 진태원 역, 난장, 2012, 50면)이라 부른다.
 - 3)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계', '부르주아지의 제도화된 무력'=근대 국가)의 폭력에 대항하는 인민 대중의 폭력을 통해서만 프롤레타리아 독재(혁명)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마르크스·엔겔스적 비전은 한국 근대 계급주의 문학에 선명하게 공유되었다. 근대 마르크스주의의 문제 설정 안에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은 계급의식이 역사에 현실적, 실천적으로 개입하는 유일한 변증법적 작용이자, 그 수행 속에서 프롤레타리아를 진정한 계급의식을 갖춘 역사적 주체로 각성시키는 형성적 기제다. 현실에서는 미조직된 체인 인민 대중의 폭력을 어떻게 조직하여 자본주의(근대 국가 폭력) 체제를 파괴할 것인가가 근대 마르크스주의가 골몰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의 필연성과 필수성에 관해서는 엔겔스, 『역사에서 계발트가 행한 역할』(『폭력과 시민다움』 부록), 죄르지 루카치, 『역사와 계급의식』, 조만영·박정호 역, 지식울만드는 지식, 2015을 참고.
 - 4) 이 글에서 '현실'과 '실재'의 개념은 지젝을 따른다. 지젝은 "현실"은 부단한 상호작용과 생산 과정을 행하는 실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현실을 말하며, 실재는 사회적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는, 냉혹하고 '추상적인', 유령과 같은 자본의 논리"(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40면)라 설명했다.

수 있다.⁵⁾ 이처럼 인간의 신체나 사물을 파괴할 수 있는 물리력이 핵심인 폭력을 바이오런스(violence)라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바이오런스들의 단순한 집합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폭력을 형성할 수는 없다. 계급의 폭력에서는 게발트(Gewalt)라는, 폭력의 다른 차원이 두드러진다. 우에노는 게발트를 ‘어떤 권한을 가진 주체가 다른 주체를 지배·통제’하는 폭력으로 설명한다. 대상을 “의지대로 지배하는 힘”⁶⁾이라는 이러한 의미는 순수한 물리력에 가까운 바이오런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등한 권리와 권리 사이에서는 게발트가 사태를 결정짓는다.”⁷⁾ “정치에는 두 개의 결정적인 역량만이 존재한다. 조직화된 국가게발트인 군대, 그리고 미조직된 인민 대중의 기초적 게발트.”⁸⁾라는 인식에서 명료히 드러나듯, 근대 마르크스주의가 함양코자 한 폭력은 개개인의 바이오런스가 아니라 계급의 게발트다. 그러나 ‘지배하고 통제하는 힘’으로서의 게발트는 바이오런스의 결집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이오런스와 게발트는 폭력의 연속체를 구성한다.

도식적으로 말해 프롤레타리아 계급 게발트는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한 방향은 외부로, 즉 자본주의 체제 파괴라는 방향으로 겨냥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먼저 게발트는 내부로,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조직’을 위해 개인을 통제하는 방향으로도 작동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경향과 문

5) 지젝에 따르면 주관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조적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폭력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은 단지 주관적 폭력의 ‘비이성적’ 폭발로만 보일 것이다.”(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24-25면) 이러한 의미에서, 신경향과 소설에 나타난 주관적 폭력들은 ‘비이성적 폭발’이 아니라 객관적 폭력의 존재를 암시하는 징후들이다. 그러나 이 폭력 표상들은 완전히 계급주의적 맥락 내에서만 의미를 획득하지는 않는다. 신경향과 소설의 폭력 표상에 관해서는 이경림, 『자살과 살인 사이-1920년대 소설과 폭력의 새벽』, 『반교어문연구』 51, 반교어문학회, 2019에서 먼저 논의했다.

6) 우에노 나리토시, 『폭력』, 정기문 역, 산지니, 2006, 12면. 이 글에서 바이오런스와 게발트의 구분은 나리토시의 논의에 따른다.

7) 마르크스, 『자본』(에티엔 발리바르, 앞의 책, 47면에서 재인용)

8) 엥겔스, 『역사에서 게발트가 행한 역할』(위의 책 부록, 184-185면)

학에서 카프(KAPF) 문학으로의 ‘진보’는 바이오런스를 조직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 계발트를 만들어내는 문학적 계보로, 폭력의 연속체에 대한 문학적 탐구로 읽을 수 있다.

카프 문학은 바이오런스에서 프롤레타리아 계발트 조직으로 나아가는 경로, 난점, 한계와 가능성을 탐구하며 폭력의 계급주의적 표상체계를 발명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의 정당한 주체인 프롤레타리아는 다시 ‘폭력적’으로 재규정되기도 했다. 폭력이 유효성=실용가치라는, 놀랍게도 공리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됨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내부가 서열화되었기 때문이다. 카프 문학은 젊고 강건한 남성 프롤레타리아의 육체를 중심으로 계급 계발트를 표상한다. 예컨대 『캡작작가칠인집』이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듯, ‘투사’=프롤레타리아 폭력의 ‘주체’ 범주에서 늙은이, 어린이, 그리고 여성과 같이 물리적으로 약한 자들은 배제되었다. 이러한 스타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내부에 있는 또 다른 계급들의 존재다. 폭력의 관점에서 서열화된 존재들 말이다. 이러한 표상의 위계질서 안에서 어떤 프롤레타리아들은 의식화의 가능성을 성취하는 대신, ‘혁명의 수행에 더 필요한’ 다른 프롤레타리아의 각성에 소용되고 사라진다. 여성이나 노약자(‘투사’의 ‘가족들’)의 처참한 빈곤과 고통이 ‘힘 있는’ 남성의 각성을 유도하는 전형적 스타일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⁹⁾

여성의 폭력은 이와 같은 전형적 표상체계에 공백으로 존재한다. 그러

9) 계급 계발트를 조직하는 상징적 폭력으로서, 카프 문학은 프롤레타리아 계발트가 계급의식 아래 조직되는 과정을 표상해보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폭력을 충실하게 재현하려는 의도가 프롤레타리아의 비참함을 강조하는 형식을 취함에 따라 프롤레타리아를 무능력하고 무식한 하위주체로 재현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고, 프롤레타리아 폭력이 계급주의적 지성을 초과하는 야만성을 예기치 않게 재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급주의적으로 문학화된 폭력은 이념적 의도를 충실히 실천하면서 동시에 그 의도를 배반하거나 의도 너머의 것들을 함께 드러냈다. 이에 관해서는 이경림, 『사회주의는 어떻게 폭력을 길들였는가』, 『민족문학사연구』 70, 민족문학사학회, 2019에서 먼저 논의했다.

나 이 공백은 결핍이 아니라 다른 전망에 대한 징후로 읽힐 수 있다. 이 공백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실제로 연약해서’ 폭력의 주체로 표상될 수 없었다는 소박한 리얼리즘적 결론을 내리고 만족한다면, 상황은 지나치게 단순해질 것이다. 여성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쉽게 지워버릴 수 없는 절반이었다. 특히 여성 해방 담론이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계급주의 인식체계 안에서, 여성은 이론(지성)과 문학(상상력) 두 차원 모두에서 프롤레타리아 계발트를 구성하는 중요한 절반으로 **표상될 필요**가 있었던 형상이다. 실제로 계급주의적 문학에서 여성의 신체는 프롤레타리아가 처한 비인간적 현실을 감각적·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해 빈번하게 소환된다. 그러나 이처럼 자본주의의 구조적 폭력이 여성의 몸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데도, 여성은 프롤레타리아 폭력의 주체로 그만큼 빈번하게 표상되지 못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이는 의아한 사태다. 프롤레타리아 폭력이 자본주의 폭력에 대한 대항폭력이라면, 즉 프롤레타리아 폭력이 체제에 억압당하는 존재들이 ‘뭇’을 주장하는 방식이라면, 이 폭력은 자본주의 폭력이 가장 집중되었던 신체를 통해 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소설에서 남성이 프롤레타리아 폭력의 주체로 나아가는 동안, 여성은 자본주의 폭력의 객체로 형상화되는 데 그쳤던 것 같다.

실제 현실 속에서의 폭력이 아니라 문학이 표상하는 폭력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형식은 그 자체로 자율성과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¹⁰⁾는 헤겔적 규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성이 폭력의 주체가 되는 형식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계급주의 표상체계에 존재한 이러한 공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상상력의 시대적 한계를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충분할까?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첫 번째, 여성의 폭력이 실제로 그렇게 과소표상될 만한 것이었는지를 검토하고, 두 번째, 여성의 폭력을 표상하는 전형적 스타일을 분석하

10)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208면.

고, 세 번째, 이러한 전형으로부터 벗어나는 표상을 살펴보려 한다.

2. 여성 폭력의 과소표상과 여성의 주체성의 과소표상

폭력의 계급주의적 표상은 젊고 강건한 남성 프롤레타리아의 육체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텍스트로 한설아의 『씨름』(『조선지광』, 1929.8.)을 들 수 있다. 『씨름』은 노동자가 언제나 ‘주먹 벼락’을 내릴 수 있는 ‘몸뚱이’, 즉 폭력이라는 점을 과시한다. ‘씨름’은 ‘잘 단련된 폭력’으로서 건장한 남성 노동자들이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형식이며, 말할 것도 없이 이 씨름판에 결집한 노동자들이 취할 수도 있는 ‘다른 폭력’을 상기시키는 상징이기도 하다. 『씨름』은 프롤레타리아 폭력의 조직이라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계급 계발트에 합류했을 때 주체가 느끼는 “감격”을 인상적으로 묘사한다.¹¹⁾ 여기서 반대쪽이 두려워하는 “너들 세상”¹²⁾이란 곧 ‘씨름’을 ‘할 수 있는’ 건장한 남성 노동자들의 세계다. 프롤레타리아 폭력의 가능성과 에너지 묘사에 집중한 이 텍스트에서 여성은 ‘자연스럽게’ 부재한다.

이처럼 프롤레타리아 폭력 표상에서 전형적인 여성의 부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다. 근대 계급주의가 상대하고자 했던 국가 계발트(군대와 경찰)가 건장한 청장년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성을 폭력의 주체로 쉽게 상상하지 못하게 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 계발트에 대한 물리적 저항과 투쟁을 염두에 둔다면, 여성(의 폭력)의 역할은 지원과 보조라는 부차적 차원에 머물러야 한다/머무를 수밖에 없

11) 이경림, 『사회주의는 어떻게 폭력을 길들였는가』, 『민족문학사연구』 70, 민족문학사학회, 2019, 364-366면.

12) 한설아, 『씨름』, 『잡프작가철인집』,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문학부 편, 집단사, 1932, 154면.

다는 판단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투박하게 말해 여성은 연약하기 때문에 폭력의 주체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적 판단—여성 해방을 내세웠던 담론 차원에서는 노골적으로 표명되지 않았던—이 여성을 ‘투사’의 후방에 있는 존재로 표상케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폭력의 주체로서 여성의 존재는 그렇게 과소 표상될 만한 것이었는가? 이 장에서는 식민지 시기 여성 노동운동—실제의 ‘투쟁’—을 검토함으로써 당시 여성의 폭력이 계급주의적 표상체계 안에서 **지녀야 했을 혹은 지닐 수도 있었을** 비중을 가늠해 보려 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노동계급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 체계가 공장생산단계로 이행하는 1920년 이후의 일이다. 식민지에서 식량과 원료를 조달, 수출하는 일본제국의 수탈 정책이 실시된 결과 농촌에서 대거 이탈하게 된 빈농층이 도시로 대량 유입되어 도시빈민층을 형성했고, 이들은 회사령 철폐(1920)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공장의 임금노동자 대열로 흡수되었다. 공장노동자 수는 1920년경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20년 전체 5만 5천여 명 수준이었던 것이 1940년에 이르면 27만여 명에 달하게 된다. 이때 공업 부문 여성 종사자 수는 1921년 약 1만여 명에서 1940년 8만여 명으로 8배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남성 노동자의 증가율(약 4만→약 20만)보다 높은 수치다.¹³⁾ 양적 측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체 공장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22년 20.5%에서 시작해 1928년 30%를 넘겼으며, 이후 1930년대 내내 32~34% 수준을 유지했다. 이때 전체 공장 수와 노동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공장노동자 수가 10만 명을 넘긴 1934년의 시점에 이르면 여성 노동자 수는 3만 8천여 명에 달했고, 1936년 시점에 그 수는 전체 노동자 약 15만 명 중 5만 명을 넘겼다.¹⁴⁾

13)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1』, 한울아카데미, 2001, 33-34면.

14) 이효재, 『일제하의 한국여성노동문제연구』, 『한국학보』 2권 3호, 일지사, 1976, 154면. 전체 생산직 노동자 중 여성 노동자 비율은 1930년경부터 30%를 상회하는 수준인데, 이는 그 당시

즉, 계급주의 문학이 활발히 창작되던 시기에 '노동부인' 내지 '무산 여성'의 절대적 숫자는 남성에게 미치지 못했으나, 그 증가율과 비율을 보았을 때 이들은 충분히 '보이는 존재'였다는 의미다. 1920년대 초 노동계급 형성 초창기부터 여성 노동자는 집단적 존재로 가시화되었다. 조선 최초의 전국 규모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가 1920년 창립되었을 때 여성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노조에 가입했으리라 추정되며, 1923년에는 최초의 여성 노동조합이 조직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투쟁 현장에서 가시화되는 일이 없었을까? 문학이 대체로 그렇게 표상했던 것처럼,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가 나서서 투쟁할 때 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자리에 머물렀던 것일까?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 노동의 가치는 식민지 기간 내내 가장 심하게 저평가되었다. 여성의 노동은 전반적인 임금 하락 기조 안에서 다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라는 이중의 억압적 체계 안에 처해 있었다.¹⁵⁾ 여성의 노동환경 또한 식민지 산업 분야 전체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다. 예컨대 여성 노동이 집중되었던 방직공업은 전체 공업 분야 중 가장 긴 시간의 노동을 강요받고 있었다. 대다수가 미성년 여성인 이들은 가혹한 노동환경과 지나치게 적은 임금 외에도 인격적 모독과 남자 감독이 행하는 몸 검사, 욕, 구타 같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¹⁶⁾ 따라서 여성 노동자들은 1920년대 초 노동계급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을 당시부터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을 목표로 한 노동쟁의에

미국 공업노동자 중 여성 비율(13%)보다 높은 것이라 한다. 이로부터 식민지 조선에서의 착취는 여성노동력 착취로 이어졌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다. Grajdanzev, Andrew J. *Modern Korea*,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New York: The John Day Company, 1944, pp.183-184. (이옥지, 앞의 책, 34면에서 재인용)

15) 1920~30년대 내내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은 하락세였는데,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성 노동은 일본인 성년 남성(1) > 조선인 성년 남성(1/2) > 조선인 성년 여성(1/4) > 미성년 여성(1/6)이라는 민족차별적·성차별적 임금체계 안에 놓여있었다. - 이효제, 앞의 글, 159면.

16) 이옥지, 앞의 책, 36-37면.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양상은 1920년대 임금 인상 요구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파업 위주 투쟁에서 시작하여, 노동운동 의식이 고조되는 193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 예컨대 노동운동 초기인 1920년대 초 임금 인하에 반대하여 일어났던 4개 공장 여공 동맹파업은 서울 최초의 조직적 파업으로, '조선 최초의 아사동맹까지 감행하는 등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¹⁷⁾ 1929년 부산 고무공장 동맹파업 때는 여직공이 집단으로 공장을 습격하거나, 1931년 평양 고무 여공 파업 때는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 채공(滯空) 시간을 갱신하는 등의 전술도 등장했다고 한다. 1933년 충남제사회사 여공 260명은 식기, 음식 등을 그 자리에 쏟아버리는 '판카 스트라이크' 등 격렬한 형태로 저항했고, 구속되어 단식 투쟁을 벌이다 옥사하거나 처형당하는 여공도 있었다. 이외에 1923년 경성고무공장 여공파업, 1923년 선미(選米) 여공 파업, 1926년 염직(染職) 여공 동맹파업, 1930년 부산 조선방직공장 파업, 1930년 평양 고무공장 여공파업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실제 노동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는 다수의 '폭력적' 쟁의를 주도하는 '주체'이자¹⁸⁾, 남성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세력'이었다.¹⁹⁾

17) 김경일, 『한국 근대 노동사와 노동 운동』, 문학과 지성사, 2004, 113-114면.

18) 여성 노동자 투쟁 사례는 이효재, 앞의 글을 참고. 이효재에 따르면 1919년부터 1940년까지 여성이 참여한 노동쟁의 사례는 122건에 달하는데, 이 중 여직공만 참가한 것은 94건, 남녀 직공 합동으로 참가한 것은 28건이다. 다만 이처럼 여성 비율이 명시된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방직이나 제사 등 특수한 산업 분야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 공장이 남녀 직공을 함께 채용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노동운동사 전체에서 여성 프롤레타리아의 존재가 과소 표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옥지는 이효재가 여성 참가 노동쟁의로 분류하지 않은 노동쟁의 사례들에서도 요구조건 등을 살펴보면 여직공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는 더 많은 노동쟁의에 여성이 참가했으리라 추정하기도 했다. (이옥지, 앞의 책, 39면)

19) 예를 들어 여성 비율이 매우 높았던 분야인 고무공업의 경우,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은 여공에 대한 남공의/남공에 대한 여공의 동정파업을 빈번히 하는 형태로 연대했다. - 김경일, 앞의 책, 150면.

여성 노동자들은 식민지에서 가장 가혹하게 착취당하는 동시에 투쟁의 최전선에서 분명히 가시화되는 집단이었다. 프롤레타리아 여성은 오히려 문학에서보다 현실에서 더 격렬한 폭력의 주체로 등장했고, 통계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도 그 주체성은 비중 있게 표상되었다. 위에서 참고한 김경일, 이효재, 이옥지 등 사회학자·역사학자의 작업은 조선총독부 등에서 발행한 통계 등과 함께 당대 신문 보도를 중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예시적으로 고무공업 파업 보도의 경우, “임신 중인 여공이나 어린애를 등에 업은 아주머니를 선두로”(『大阪毎日(조선판)』, 1933.10.28.), “추석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벌지 못한 여공들”(『동아일보』, 1933.10.29.)²⁰⁾이 경찰, 순사 등에 맞서 충돌하는 대목 등에서 당대 미디어 상에 여성이 투쟁 주체로 표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폭력의 계급주의적 표상체계 안에서 여성(폭력)의 주체성이 과소 표상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은 현실 속에서는 투쟁의 주역이었으나 문학 내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못했다. 예컨대 프롤레타리아 여성을 주로 ‘희생양’으로 표상하는 경향은 프롤레타리아 여성을 폭력의 공백으로 밀어내는 전형적 스타일 중 하나다. 배러클러프의 분석에 따르면, 계급주의 문학 서사 내에서 여성 노동자는 주로 “온갖 종류의 학대에 예측되어 착취당하는 무기력한 식민지 자본주의의 외로운 희생양”²¹⁾으로 재현되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이 투쟁의 주체가 아니라 (남성 주체의 각성을 유도하는) 원인·(자본주의 현실의 비인간성을 가시화하는) 배경이라는 맥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현실을 완전하게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이처럼 여성의 현실과 여성의 (전형적) 표상 사이의 불균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문학작품에 재현된 여성은 그 자체로 이미 일련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만들어진 담론적 구성물이자 재현의 정치학의 결과물”²²⁾이라는 사실이다. 같은 맥

20) 기사 구절은 김경일, 앞의 책, 141면에서 재인용.

21) 루스 배러클러프, 『여공문학』, 김원·노지승 역, 2017, 76면.

락에서, 폭력의 표상체계에 나타난 이러한 불균형은 계급주의적 표상체계 자체의 남성 중심성을 드러내는 징후로 지적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여성은 투쟁의 주체처럼 묘사될 때에도 남성 동지의 계급의식을 각성시키고 투쟁의 '분위기'를 돋우는 형상으로 소모되고 사라지곤 한다.²³⁾ 이러한 경향이 예시적으로 드러난 소설로 김남천의 『공장신문』(『조선일보』, 1931.7.5.~15.)을 들 수 있다. 이 소설이 특히 인상적인 이유는 소설의 무대가 된 고무공업계가 명백하게 여성노동력이 집중된 분야였고, 실제 노동쟁의 상에서도 여성이 도드라졌던 현실에 비해 소설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효과적으로' 사상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⁴⁾ 평양의 고무제조업 공장이 무대인 이 소설에서 주도권을 쥔 인물들은 모두 남성이다. 부패한 조합 간부 재창, 그에 맞서 노동자를 규합하려는 관수, “자기에게 결함이 있는 것은 알고 있”²⁵⁾는 관수가 의지하며 가르침을 요구하는 ‘사나이’들이 서사를 주도하는 가운데, 여직공의 존재는 짧은 소설 초반이 지나간 후, 고무 직공 군중을 묘사할 때 “여직공 남직공 늙은이 젊은이 시들은 얼굴 열 오른 눈”²⁶⁾에 섞여 비로소 텍스트에 등장한다. 그리고 공장 마당에 군

-
- 22) 심진경, 『여성문학의 탄생, 그 원초적 장면』,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55면.
- 23) 물론 예컨대 송영의 『우리들의 사랑』(『조선지광』, 1929.1.)처럼 ‘혁명의 자원’으로서의 여공에 분명히 초점을 맞춘 소설—‘운동’에 의지를 상실한 채 ‘타락한 남주인공 영노와 대비되는 여주인공 용희가 ‘동경여자직공조합대도정지부’라는 기(旗) 아래 메이데이 파업에 참가한다는 결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계급주의 문학 전체를 볼 때, 계급의식을 자각하고 투쟁에 나서는 전형적 주인공들은 대체로 젊고 신체적으로 강건한 남성들이다.
- 24) 고무공업은 통계가 남아 있는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여공의 비율이 67~68%를 상회하는 대표적 공업 분야였다. 특히 1930년대 이전까지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1:2 정도였던 데 비해, 30년대를 넘어가며 여성노동자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대체로 1:3의 비율을 차지했다고 한다. 고무공업의 경우 서울, 부산 등 타 지방에 비해 평양에서 노동쟁의가 적극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지역 노동자들이 일찍 의식화, 조직화되며 ‘계급의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초반 노동운동의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실시된 총파업의 경우, 그 시발점에 있었던 것도 여공 92명의 동맹파업이다.(김경일, 앞의 책, 95면; 121면) 익히 알려진 대로 김남천은 1930년 평양고무공장 직공 파업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 25) 김남천, 『공장신문』, 『조선일보』, 1931.7.5. 1회. 이하 『공장신문』 연재본 인용 시 『공장신문』, 회수로 간략히 표기하겠다. 인용문의 현대어 윤문은 필자.

집한 직공들 사이에서 사측의 처우에 대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때, 여직공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렇죠!”

창문에 매달린 여직공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를 킥킥 웃는 이도 있었다. (…)

“결코 아니요—”

가늘고 높은 여직공의 목소리가 날 때에는 조금씩 웃는 사람이 있었다.²⁷⁾

의미심장하게도, 이 소설에서 여직공의 목소리가 직접 등장하는 이 단 두 대목에는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곧바로 뒤따라 나온다. ‘킥킥웃’ 웃거나, ‘가늘고 높은’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웃는’ 이 제스처는 여직공의 존재를 함께 파업 대열에 선 동지로 표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목에서 텍스트는 나쁜 경우에는 여공을 이 ‘군중’에 아예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표상하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여흥에 가까운 존재로 표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들에서 실제로 ‘재현’되는 것은 ‘발언과 논쟁과 논평이 오고 가는 공적 영역과 여성의 목소리 사이에 존재하는 어색하고 불편한 문화적 관계’²⁸⁾다. “여성의 언어를 대단찮은 것으로 만들거나 ‘사적인 영역으로 되돌려놓음으로써’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지위를 변질”²⁹⁾시키는 이러한 스타일은 계급주의적 표상체계 자체에 내장된 불균형을 시사한다.

『공장신문』에서 관수와 나란히 선 일행, 후에 직공들이 직접 뽑은 위원회 위원이 되는 다섯 명 중에는 분명 여성이 두 명(선녀, 보부아미) 포함

26) 『공장신문』, 3회.

27) 『공장신문』, 4회.

28) 메리 비어드, 『여성, 전적으로 권력에 관한』, 오수원 역, 글항아리. 2018, 27면.

29) 위의 책, 53면.

되어 있다. 그러나 소설의 마지막 ‘공장신문’이 발행되었을 때, 이 신문은 고무직공 노동자의 결집을 촉구하고 투지를 북돋우며 다음과 같이 외친다.

전 **화평고무직공 형제들아!** (畧)의 준비를 하여라! 다른 공장 형제들도 늘 (畧)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곧 마당에 모여서 우리들끼리 지도부를 선거하자!³⁰⁾

이처럼 ‘형제’라는 대명사로 호명되는 ‘우리들’ 사이에서 여성은 효과적으로 지워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배러클러프가 계급문학을 검토하며 “노동자계급 여주인공은 계급주의적인 남성 노동계급에 의해 구조”되고, 대체로 노동자계급 여성들은 “혁명의 보조자로 묘사되며, 그들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성 동료들의 세심한 지도를 통해 정치적으로 각성하게 된다. (...이들 여공은) 노동자계급 여성들에게 할애된 역할들이 얼마나 주변적이며 제한적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³¹⁾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데 동의하게 된다. 그러나 본 논의의 선상에서, 이 진술은 다음과 같이 보충될 수 있다. 표상된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주변성’과 ‘제한성’은 실제 현실에서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폭력의 문제에 국한하여 말하자면, 식민지 시기 문학에서 여성의 폭력은 과소 표상되고 있다. 여성을 ‘희생양’으로 그리는 형식, 여성을 실제 투쟁의 현장에서 지우는 형식 등은 폭력의 주체로서 여성을 공백으로 밀어내는 전형적 스타일들이다.

30) 『공장신문』, 9회.

31) 루스 배러클러프, 앞의 책, 109면.

3. 여성의 폭력을 다루는 계급주의적 형식들

1) 여성성과 계급성: 여성 폭력 표상의 불투명성과 임계

여성의 폭력은 왜 잘 보이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앞 장에서는 표상체계의 불균형에 주목함으로써 접근해보려 했다. 이 불균형은 작가 개개인이 아니라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수용·사용·재생산한 표상체계 자체의 불균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표상체계 안에서 여성의 폭력이 가시화되었을 경우, 그것을 다루는 전형적 도식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전형적 도식과 비교될 수 있을 다른 스타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장에서는 강경애 소설을 중심으로 이러한 질문들에 접근해보려 한다.

사회주의 여성 작가들은 대체로 남성 작가들보다 문단에 늦게 진입하였으며, 따라서 기존의 남성중심적 표상체계를 수용하며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 수용이란 적극적 모방부터 의식적 반발까지, 개별 작가 나아가 개별 텍스트에 따라 질적으로 상이한 ‘반응’을 유도한 공통의 토대였다. 이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그리고 여성 작가들 혹은 텍스트들에 새겨진 이 상이한 반응들은 지금까지 주로 계급성과 여성성이라는 두 항 사이에서의 길항으로 해석되어 왔다.

계급성과 여성성이라는 해석 도식 자체는 일정부분 당시 여성 작가들이 취했던 문학적 전략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 계급주의 문학 안에서 계급성과는 다른 ‘여성성’을 표상하는 ‘일’은 여성 작가들이 자기 존재를 차별화하는 효과적 수단이었기 때문이다.³²⁾ 이는 계급주의 표상체계

32) 예컨대 1933년 1월 『신가정』 창간호에 연재된 박화성, 송계월, 최정희, 강경애, 김자혜 다섯 여성 작가들의 연작소설 『젊은 어머니』는 개별적 존재였던 여성 작가들을 ‘여류(女流)’라는 집단으로 가시화하는 기획이었다. 작품의 제목처럼 이 소설들은 ‘무산 여성’이라는 계급적 주체를 모성으로 상징되는 구 여성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모성의

에서 여성성이 처음부터 남성 중심적 주류(계급성)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차이로서 인지·표방·수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등장’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일정부분 전략적 차원에서 도입된 여성성이 본질적(내용적) 차원에서 계급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고민케 한다.³³⁾

이 맥락에서 제기되었던 질문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뾰뚱한 현실성에서 비롯된 여성성(여성서사)이 추상적이고 도식적인 계급성(남성서사)을 보완하는가? 아니면 그것과 충돌하고 균열을 내는가? 여성성에 계급성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내장되어 있어 둘은 필연적으로 어긋나게 되는가? 본 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질문들은 ‘여성의 폭력은 누구를 향한 폭력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여성=계급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텍스트 내 여성의 폭력은 유산계급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날 것이며,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계발트로 전부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폭력이 유산계급이 아닌 다른 대상을/

로 규정되는 구 여성적 정체성에 반발하여 개인적 주체성을 강조했던 1기 여성작가들과 대조되는 것이다. 반면 강경에 등은 사회(주의)적 맥락에서 모성에 재접근함으로써 계급주의(적) 여성성을 표상했다.(김연숙,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여성 작가의 정체성』,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342면) 이는 대범한 성적 해방론을 필두로 확산되었던 이른바 ‘붉은 사랑’ 류가 표상하는 사회주의적 여성성과도 대조된다.

- 33) 강경에 소설은 특히 계급성과 여성성의 폭 넓은 길항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했던 바 있다. 여성성을 계급성에 종속된 하위범주로 보는 경향을 대표하는 연구로는 최학송, 『강경에 소설의 주제와 변모양상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2009; 정미숙, 『한국여성소설 연구입문』, 태학사, 2002를 들 수 있고, 반대로 여성성이 계급성을 초과하는 지점에 주목한 대표적 연구로는 서영인, 『식민주의와 타자성의 위치』, 소명, 2015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틀은 다른 계급주의 여성 문인들을 포괄할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박화성 소설에서 여성성이 계급성에 단단하게 종속되어 있는 데 비하면, 강경에에게서는 계급성으로 다 드러나지 못하는 여성성이 도드라진다는 ‘차이’를 강조한 연구(이태숙, 『사회주의 여성 문학의 계급성 문제』, 『어문학』 78, 한국어문학회, 2002)가 대표적이다. 한편 여성성을 남성 중심적 계급서사에 현실성을 보완하여 도식성을 탈피하게 해주는 보완적 특질로 접근하려는 경향(나병철, 『식민지 시대의 사회주의 서사와 여성담론』,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또한 도드라진다. 계급성과 여성성의 ‘결합’ 정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시해 보인 김복순의 연구(김복순, 『강경에의 ‘프로-여성적 플롯’의 특징』, 『한국현대문학연구』 25, 한국현대문학회, 2008)는 이러한 경향들의 종합을 보여준다.

도 향하는 폭력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여성이 당시 상상되었던 계급 이상 혹은 이하라는 점을 함축할 것이다.

‘여성의 폭력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야기하는 난점은, 계급주의적 세계에 배치된 무산여성의 폭력을 포착한 『어머니와 딸』(『혜성』(→『제일선』), 1931.8.~1932.12.)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어머니와 딸』의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 이 소설에서 여성이 겪는 갈등은 모계를 따라 유전되며 축적된다.³⁴⁾ 여기서 여성 인물들에게 가해지는 (세계의) 폭력은 분명히 계급적 뿌리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텍스트에 나타난 폭력들에는 계급착취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다른 성분들이 섞여있다.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일순간이나마 폭력의 주체로 확실히 표현되었던 예쁜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따라가보겠다.

예쁜은 『인간문제』의 주인공 선비의 원형 격인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³⁵⁾ 변변찮은 소작농 집안 출신인 예쁜은 지주 이춘식의 소설로 들어간 후, “이 집안 사람들은 자기와는 딴 나라 사람들과 같이 생각”³⁶⁾된다는 계급적 감각을 얻는다. 그러나 텍스트 내에서 예쁜은 무산계급으로서의 자기인식에서가 아니라, 아기의 ‘어머니’이자 나아가 누군가의

34) 『어머니와 딸』은 어머니 예쁘과 산호주, 그리고 딸 옥의 이야기를 다룬다. 변변찮은 소작농 집안 출신인 예쁜은 지주 이춘식의 소설로 들어갔으나, 수난을 겪고 딸을 데리고 나와 친정으로 돌아간다. 이후 예쁜은 술장사로 빠져 전락하고, 예쁜의 딸은 새로운 어머니 산호주를 만나게 된다. 평양의 유명한 기생 산호주는 물심양면 뒷바라지했던 애인 강수에게 버림받자, 그의 아들을 뱀 채로 예쁜의 마을로 흘러들어와 살림을 차렸다. 산호주는 예쁜의 딸을 동정하여, 그녀를 수양딸 격으로 집에 들이고 옥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여주었다. 산호주의 유언에 의해, 옥이 스무 살 나던 해 옥과 산호주의 아들 봉준은 혼례를 올리게 된다. 후견자인 김영철의 덕택으로, 옥은 봉준을 평양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 사이 농사 등 집안일을 건사하며 살림을 하고, 한편 학교에 입학하여 배움도 얻는다. 그러나 봉준이 다른 여학생을 사랑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옥은 갈등에 쌓인다. 옥이 끝내 이혼을 결심하는 것처럼 암시하며 서사는 끝난다.

35) 서사 구성 면에서도 두 작품의 구조는 상당히 유사하다.

36) 강경애, 『어머니와 딸』, 『강경애 전집』, 이상경 편, 소명, 1999, 46면.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할 때는 「작품명」, 면수로 약칭하겠다.

‘아내감’이라는 사실에 의해 더 분명히 결정되는 인물이다. 때문에 자신에게 가해진 착취에 대해 반발하는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예쁜의 폭력은 계급적 분노로 해석되기 힘든 지점들을 포함하고 나타난다.

“끌어내게!”

집안이 찌렁찌렁 울었다. 상노는 또다시 달려들어 예쁜의 두 손을 사정없이 나뒤흔다. 그는 폭 고꾸라지며 두 팔을 마음껏 뿌리쳤다.

“애기 주어요! 내가 낳았지 누가 낳았단 말이야!”

예쁜이의 입술에서는 빨간 피가 흘렀다. 상노는 예쁜이의 허리를 짚지 않았다.

별안간 대문이 활짝 열렸다. 뒤이어 나타나는 키가 들어쫓은 듯한 힘 상스럽게 생긴 한 사나이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상노를 잡아나뒤흔 채 팽개쳤다.

(…) 둘째는 담박 안방으로 뛰어들자 잡히는 대로 잡아나뒤흔다. 주옥 어머니는 어디로 숨은 꼴이었다. 어린애는 “악” 하고 울었다. 둘째는 어린애를 껴안고 밖으로 나왔다.

예쁜이는 어린애를 받아 안고 죽어 넘어진 상노놈을 건너서 허방지방 나왔다.

(…) 예쁜이는 차안으로 끌려왔다. 차는 움직였다. 순간에 예쁜이의 정신은 팔쩍 들었다. 그는 아기를 마루바닥에 팽개치고 미친 듯이 창 앞으로 달려갔다.

“둘째야! 둘째!”

소리를 치고 뛰어내리려 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꼭 붙잡았다.³⁷⁾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장면에서 예쁜이 가진 계급적 분노가 남성에 의해 **대리수행**된다는 점이다. 아이를 빼앗긴 데 대한 ‘어머니’ 예쁜의 분노에는 분명 계급적 감각—‘내가 낳은 것을’ 빼앗아간 본처에 대한 분노

37) 『어머니와 딸』, 49면.

—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분노는 예쁜을 사랑하여 예쁜이 소실로 가고도 계속 곁을 맴돌고 있던 ‘사나이’ 둘째에 의해 대리수행된다. 이 장면에서 예쁜은 계급적 갈등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력한 존재로, 즉 ‘희생자’에 가깝게 나타난다. 이러한 서사 아래에는 앞서 언급했던 바, 계급착취에 희생된 여성을 (무산계급) 남성이 ‘구원’한다는 전형적 도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도식에 의존하면 ‘지위지기 쉬운’ 여성의 폭력이 묘사된 두 번째 대목에 주목하고 싶다. 둘째에 의해 대리수행된 예쁜의 폭력이 비교적 선명한 의미(계급적 분노)를 가진 데 비교하면, 아기를 마룻바닥에 팽개치는 행동은 이해불가능한 바이오런스로 나타난다. 이는 신경향과 소설에 나타났던 바이오런스와도 다른 곁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홍염」의 결말에 나타난 문 서방의 폭력은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원한에서 우러난 광기 어린 바이오런스로, 그 표출 형태는 예쁜의 폭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 서방이 도끼로 지주를 살해하는 바이오런스는 계급적 맥락에서 이해가능한 것으로 표상되며, 또한 프롤레타리아 계발트로 분명히 수렴되는 것으로 선언된다. 이에 반해 아기를 마룻바닥에 팽개치고 기차에서 뛰어내리려는 예쁜의 폭력성은 계급적 맥락에서 거의 이해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아기가 예쁜이 빼앗겨서 분노했고, 그래서 되찾아왔던 바로 그 대상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은 폭력은 무엇에 대한, 누구를 향한 분노와 폭력인가? 방향과 대상이 불명확한 이 폭력은 발악과 광기, 발작적인 자기파괴의 바이오런스로 묘사된다. 문 서방에게서 예시적으로 드러난 바 신경향과 소설 속 남성 인물의 바이오런스가 계급적인 경로를 따라 표출되는 반면, 예쁜의 폭력에는 그러한 지향성 자체가 상실되어 나타난다. 아기를 팽개치는 행동 배후에서 지적이 말했던 것과 같은 객관적 폭력(구조적 폭력)의 존재를 읽어내기는 어렵다. 이 점이 예쁜의 폭력을 의미 없는 ‘비이성적 폭발’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어머니와 딸』은 분명히 계급적 뿌리를 가진 예쁜의 바이오런스를 계급의 계발트로 수렴하는 경로를 탐색하는 대신 에피소드적으로 소진하는데 그쳤다.³⁸⁾ 이는 바이오런스가 프롤레타리아 계발트로 수렴되는 계급주의적 폭력의 계보를 분명히 그려 보인 동시기의 『부자』(『제일선』, 1933.3.)와 상당히 대조적인 양상이다. 이 소설에서 아버지의 ‘신경향파적’인 폭력(바이오런스)은 아들을 통해 ‘목적의식적’인 폭력(계발트)으로 뚜렷하게 계승된다. 그런데 이 ‘정통적인’ 폭력의 계보 안에서, 여성은 노골적으로 도구적 존재로 나타난다. 『부자』에 묘사된 여성의 역할이란 장사에게 억지로 납치되듯 끌려와 맞아가며 살다가 아들 바위를 낳아주고 퇴장하는 것이다. 이 두 소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어머니와 딸』에 묘사되었던 어머니-딸의 계보에서는 『부자』에 묘사된 아버지-아들의 계보에서와 달리, 계급의 세습이라는 세대 간 공동지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머니와 딸』에서 모계는 빈농의 딸, 부자집의 첩, 기생 출신의 소지주, 그리고 소지주의 며느리이자 유복한 지식계층과 같은 다양한 계급(성)에 의해 교란되는 계보로 나타난다. 즉 여기서 여성의 계급성은 자기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남편의 계급에 의해 결정되는 부차적 성질인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여성 인물이 직면한 갈등은, 이 갈등들 전체에 계급적 함의를 부여하려는 텍스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급의 경계를 횡단하여 나타난다. 『어머니와 딸』에서 여성의 폭력(성)이 계급과 무관한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은, 계급으로서의

38) 『어머니와 딸』은 계급으로의 경로를 예쁜 대신 딸 옥을 통해 탐색해보았다. 그러나 옥의 각은 예쁜이 실제 현실 속에서 획득한 계급적 감각에 비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옥이 계급의식을 각성하고 자기 갈등을 계급적 맥락에 재배치하는 순간이 “몇 백 명의 노동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해 바친 영실 오빠”(『어머니와 딸』, 121면)와 우연히 마주침으로써 유도된 돌발적인 것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남성을 매개로, 또한 완전한 타인인데도 다시 가족적 상상력을 통해 옥의 각성이 완성된다는 점, 즉 여성이 계급주의와 관계하는 방식의 표상체계 전체가 남성 중심적이고 그 결과 유사 가족적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예쁜은 그 자신 계급착취의 희생자로서 직접적으로 계급에 연결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고, 옥은 간접적으로, ‘오빠’ 같은 존재를 통과하여 계급주의 세계와 연결되었다.

여성의 이러한 부차적 존재방식에 대한 인식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와 딸』에서 나아가 『인간문제』는 ‘여성 노동자’라는 단일계급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천여 명의 여공들이 한 몸이 되어”³⁹⁾야 한다는 의식, “이애, 지금 정미소 여공들은 무섭다더라. 저이들끼리 싸이렌을 울리고 막 폭행을 하는데 야단이더래!”⁴⁰⁾하는 언급 등을 통해 프롤레타리아-여성-폭력의 가능성을 보다 선명히 제시해 보였다. 그러나 이 텍스트 역시 무산 여성을 전반적으로 계급적 지반이 아닌 성적 지반에서 더 집요하게 다룸으로써⁴¹⁾ 결과적으로는 여성을 남성 노동자에 비해 계급적으로 불투명한 존재로 표상하게 되었다. 여직공 규합에 골몰하던 간난이 ‘탈출’하는 형태로 서사에서 사라지고, 공장에 남았던 선비가 폐병으로 죽으면서 결국 마지막 혁명으로 향하는 대열에서 첫째만이 두드러지는 결말은, 사회주의 내에서 여성 폭력 표상의 임계를 드러낸다고 하겠다.

2) ‘지원자’로서의 여성과 여성-계급-투사

특히 『공장신문』이나 『씨름』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강경애 소설에서는 여성을 **포함한** 프롤레타리아 계발트의 구성이라는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이 선명한 경우에도 여성은 폭력의 주체—‘투사’—이기보다는 폭력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후방의 주

39) 『인간문제』, 316면.

40) 『인간문제』, 348면.

41) 공장 여공들이 감독에게 농락당하거나 감독과 공공연히 밀회하는 등의 묘사가 여공의 ‘노동 환경’ 묘사의 상당 부분을 점하며, 주요 여성 인물인 선비와 간난을 형성하는 초기 갈등은 성적 착취다. 그런데 이 성적 착취에 대하여 선비가 가졌던 양가 감정은 계급주의에 의해서만은 설명되기 힘들다. 선비와 간난은 자신을 계급적 존재로서보다 먼저 성적 존재로 감각한다. 계급에 선행하는 이 감각이, 이들의 서사에서 계급주의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지점을 만들어낸다.

체로 표상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점은 『축구전』(『신가정』, 1933.12.)에서 잘 드러난다. 이 소설은 흥미롭게도 『씨름』을 다시 연상시키는데, ‘운동’의 세력을 과시하고 아군을 결집하기 위해 씨름이나 축구 같은 경기를 선택한다는 점, ‘운동경기가 남성이 자기의 육체와 운동능력=폭력성을 과시하는 장이라는 점, ‘경기가 계급투쟁을 은유한다는 점에서 그렇다.⁴²⁾

여성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씨름』과 달리, 『축구전』에는 여성 ‘동지’들이 큰 비중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여성은 자본주의 폭력이 가해지는 ‘희생양에서 벗어나 혁명의 주체 대열에 남성과 나란히 선다. 다만 『축구전』에서 이들의 역할은 성별에 따라 분업화되어 나타난다. 승호가 검거를 피해 달아나거나 싸우는 동안, 희숙은 동무들을 숨겨준다. 남성들이 ‘축구장에 나가 “다리를 채어 피가 흐르고 한 학생은 골이 터져서”⁴³⁾ 다니는 동안, 여성들은 경마장 임시여급으로 일한다. “선수들이 신고 싶어 하는 축구화도 살 수 있고 쌀밥도 해서 배가 부르도록 먹일 터인데.”⁴⁴⁾라는 것이 여성 동지들의 열망이기 때문이다.

말끝을 흐리며 머리를 돌리는 부인의 눈에는 선수들의 피나는 다리와
골머리가 확실히 보이는 모양이다.

42) “이번 xx회 주최로 열리는 축구대회에 우리 학교도 참가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동무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 // “네,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 틈에 섞여서 뛰는다더라도 과오만 범치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나가야 할 필요를 말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작년 검거사건 이래 너무나 죽은 듯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전하는 것은 하필 승리를 거두어보겠다는 것보다도 우리들의 꺾이지 않은 존재를 대중에게 알려 주고자 함이외다!” // 승호는 기침을 각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였다. // “지금과 같은 반동기에 있어서는 지배계급의 적극적 탄압에 대중이 낙망을 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활동이 어느 면으로나 더욱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 강경애, 『축구전』, 『강경애 전집』, 이상경 편, 소명, 1999, 475면.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할 때에는 「작품명」, 면수로 간략히 표기하겠다.

43) 『축구전』, 479면.

44) 『축구전』, 478면.

“어서 가 보우. 그리고 위로나 잘 해주우.”

그들은 울음이 북받쳐 어쩔 줄을 모르다가 부인이 앞을 떠나감을 알았을 때 휘끈 돌아보니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부인임을 새삼스럽게 발견하였다.

그들은 순간에 어떤 힘을 불쑥 느끼며 축구장으로 달려왔다. 벌써 동무들은 행렬을 지어 한끝은 시가로 향하였다. 행진곡이 쿵쿵 울린다. 얼핏 바라보니 승호가 깃발을 쥐고 앞장섰다. 행진! 그 뒤로는 군중이 물밀듯 따라섰다. 마저 넘어가는 햇빛에 D학교의 깃발은 피같이 붉었다.⁴⁵⁾

이 마지막 장면은 폭력의 주체는 남성이며, 여성의 역할은 물질적·정신적 지원—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고 패배를 위로하는—이고, 그 위치는 전선(戰線)의 후방이라는 계급주의적 폭력 표상의 구조 전체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여성을 폭력(혁명)의 ‘지원자’로 배치하는 도식에서는 폭력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공백으로 남는 대신, 폭력의 문제에 관하여 여성(성)이 아무런 난점도 제기하지 않는다. 여성이 지원의 자리에 머무를 때, 여성성(여성서사)은 계급성(계급서사)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다. 『축구전』은 성별에 따른 계급 내 역할 분업을 ‘자연스럽게’ 표상함으로써 여성을 프롤레타리아 계발트 안으로 포섭한다. 남성이 피를 흘릴 때 여성은 눈물을 흘리는 이 문학적 세계에는, 당시 상상되었던 프롤레타리아 계발트의 전형이 드러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이 자본주의 폭력의 ‘희생양이나 프롤레타리아 폭력의 ‘지원자’가 아닌 폭력의 주체로, 즉 ‘투사로 나아가는 길은 볼 수 없을까? 이 예외적 경로는 『소금』(『신가정』, 1934.5.~10.)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 소설은 앞서 『어머니와 딸』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여성 인물의 계급적 불투명성을 독특하게 ‘처리’함으로써 여성의 폭력을 프롤레타리아 계발트의 계보 안에 끼워 넣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45) 『축구전』, 480면.

『소금』은 간도를 배경으로 빈농 가족이 몰락한 후 한 여성이 소금 밀매에 손대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 현실에 기초해 보여주는 소설이다.⁴⁶⁾ 주인공 봉염 어머니는 중국인 지주, 중국 군대(보위단),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후 조직한 무장단체 자위단과 마적단, 공산당 등에게 “날마다 위협을 당하”⁴⁷⁾는 처지에 처해있다. 텍스트 초반에 공산당은 자위단 등과 마찬가지로 봉염 어머니에게 폭력적인 세력으로 묘사된다. 봉염 어머니의 남편은 지주와 자위단에게 ‘고맙게 굴다가’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었고, 아들 봉식은 반대로 공산당에 입당하였다가 체포·처형당하고 만다. 그러나 봉염 어머니가 공산당을 향해 가진 반감은 소금 밀매 때 공산당의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반전되기 시작한다. 봉염 어머니는 공산당에게 발각되었을 때 “저들이 어째서 우리들의 소금짐을 빼앗지 않고 그냥 보내었을까”⁴⁸⁾라는 의문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대목에 순사가 소금 밀매 깃새를 눈치 채고 봉염 어머니의 “손을 잡아 나꾸”⁴⁹⁾ 치는 순간, 공산당이야말로 자신이 함께 싸워야 할 ‘동지’임을 자각하고 ‘벌떡 일어난다.’ 이 마지막 대목은 당시 검열로 삭제당한 채 발표되었으나 한만수가 다음과 같이 복원해 보인 바 있다.

밤 산마루에서 무심히 아니 알뜰게 들었던 그들의 말이 ○○떡오른다.
 『당신네들은 우리의 동무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당신네들이 합심하는데서만이 우리들의 적인 돈많은 놈들을 대○할수 있습니다!』 ○○한 어둠 속에서 ○어지던이말! 그는 가슴이 으적하였다. 소금자루를 뺏지않던 그

46) 만주/간도 체험은 강경애 소설에 특유의 현실성을 부여해준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주목되었다. 최근에는 강경애의 계급주의 형성의 토대로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20년대 후반 강경애의 복만 체험에 관해서는 이상경, 『강경애 문학의 국제주의의 원천으로서의 만주체험』, 『현대소설연구』 66, 현대소설학회, 2017과 최학송, 『만주 체험과 강경애 문학』,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을 참고할 수 있다.

47) 『소금』, 492면.

48) 『소금』, 535면.

49) 『소금』, 537면.

들 ○○ 그들이 지금 곁에 있으면 자괴를 도와 싸울것같다. 아니 꼭 싸워줄것이고 ○○ 내 소금을 빼앗은 것은 돈많은 놈이었구나!」 그는 부지중에 이렇게 고○○○ 이때까지 참고 놀렀던 불평이 불길같이 솟아올랐다. 그는 벌떡일어났다.⁵⁰⁾

한만수는 『소금』에서 삭제됐던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는 왜 가난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최종 답변이 제공되는 대목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⁵¹⁾ 이 장면은 순사의 폭력에 직면하는 순간 ‘벌떡 일어난다’는 표현을 통해 봉염 어머니를 ‘불길 같은’ 폭력의 주체로 분명히 표상해보인다. 또한 이 폭력은 ‘내 소금을 빼앗은’ ‘돈 많은 놈’에 대항하여 공산당과 ‘곁에서 나란히 싸우는’ 폭력으로, 즉 거의 순수하게 계급적 합의만을 지닌 폭력으로 나타난다. 『소금』은 ‘여성의 폭력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명료하게 ‘유산계급을 향한 것’이라는 답변을 제출하고, 나아가 그 폭력의 주체 자리에 여성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와 딸』은 물론 『인간문제』에서도 완전히 표현되지 못했던 전명이다.

그런데 봉염 어머니가 계급으로 각성하는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봉염 어머니가 ‘봉염이의 어머니’라는 ‘여성성’을 ‘잃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성과 계급성이라는 이항관계에서 벗어나는 『소금』의 독특한 경로를 보여준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여성성’이 ‘최초의 계급성’이라는 앵겔스적 인식이다. 앵겔스는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1884)에서 여성(성)을 ‘최초의’ 계급(성)으로 사유했던 바 있다.

“최초의 노동 분업은 아이를 낳기 위한 남성과 여성의 분업이다.” 이제 나는 다음을 덧붙일 수 있다. 즉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계급 대립은 단혼

50) 한만수, 『강경에 소금의 복사 복원과 검열 우회로서의 ‘나뉘쓰기’』, 『한국문학연구』 3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174-175면. 강조는 필자.

51) 위의 글, 170면.

에서 남편과 아내의 적대의 발전과 일치하고, 최초의 계급 억압은 남성에게 의한 여성 억압과 일치한다.⁵²⁾

‘최초의 계급’으로서 여성은 ‘아이 낳기’라는 ‘여성적’ 노동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다.⁵³⁾ 그리고 ‘인간 자체를 생산’하는 이 노동자의 정체성은 ‘아내’와 ‘어머니’라는 ‘여성성’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인식에 토대하자면 아내와 어머니라는 가족 내 존재로만 표상되는 여성성은 ‘최초의 계급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봉염 어머니의 각성은 여성이 이와 같은 ‘여성성’= ‘최초의 계급성’을 벗어나 (현대의) ‘무산계급성’을 획득하는 경로로 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소금』은 ‘봉염 어머니가 어떻게 봉염 어머니가 아니게 되는가’를 충실히 보여주는 서사다. 봉염 어머니는 처음에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젓을 먹여 길렀던 명수와 두 딸마저 다 잃은 후, 소금밀매꾼이라는 ‘직업=노동’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계급성을 명료하게 자각해나가게 된다. 왜 서사는 어린 딸 하나라도 봉염 어머니에게 남겨두지 않았을까? 텍스트는 봉염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투사’로 각성하는 결말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의 ‘아내’와 ‘어머니’라는 ‘여성성’을 전부 ‘잃게 함’으로써 봉염 어머니를 오로지 그 자신의 계급적 지반 위에 남겨두는 결말을 택했다.

52)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개정판, 김경미 역, 책세상, 2018, 111면.

53) 계급이 관계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관계란 마르크스가 ‘잉여가치’라 부른 것을 빼앗아가는 착취 관계를 뜻한다면(제프리 디 세인트 크로익스 외, 『계급, 소외, 차별』, 책갈피, 2017, 31-33면) 이 ‘최초의 계급 억압’에서 여성은 가장 먼저 가족 내에서 착취관계에 놓인다. 엥겔스는 ‘유물론적 인식에 따르면 역사를 최종적으로 규정하는 계기는 직접적 생활의 생산과 재생산이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다시 이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으로는 생활 수단들의 생산 즉 의식주의 대상과 이에 필요한 도구의 생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자체의 생산 즉 종의 번식’(프리드리히 엥겔스, 『1884년 초판 서문』, 앞의 책, 18면)이라 썼다. 엥겔스는 ‘인간 자체의 생산’이라는 지반 위에서, 여성은 여성의 생산물인 아이와 자기 혈통인 아이의 상속을 둘러싼 권리인 ‘모권’을 착취당하는 역사를 걸어왔다고 보았다.

남들은 아들딸을 먹여 살리려고 소금짐까지 지지만 자신은 누구를 위하여……? 마침내 자기 일신을 살리려 라는 결론을 얻었을 때 그는 너무나 적적함을 느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일신일지라도 스스로 악을 쓰고 벌지 않으면 누가 뜨물 한술이나 거저 줄 것일까? 굶는다는 것은 차라리 죽음보다도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다.⁵⁴⁾

『소금』 말미에 자각된 봉염 어머니의 계급성은 『어머니와 딸』에서 예시적으로 보았던 바와 같이 아버지와 남편의 계급성에 의해 결정되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다. 봉염 어머니의 계급성은 그 자신의 노동의 성격—‘자기 일신을 살리는’ 소금밀매—과 ‘스스로 악을 쓰고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위치로부터 결정된다. 이와 같은 계급성은 어머니가 가족을 모두 잃은 후에, 즉 여성 특유의 것으로 표상되었던 기능들—지원과 위로와 생산(생식)이라는 ‘여성성’을 모두 잃은 후에 각성되었다. 앵겔스적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마지막 대목에서 공산당과 함께 싸우기 위해 ‘일어서는’ 이 여성은 ‘최초의 계급’으로부터 먼저 해방된 여성이다. 성(아내)과 모성(어머니)을 ‘잃은’ 후, 소금을 함께 지고 또 소금을 빼앗기는 사람이 됨으로써 더 이상 봉염 어머니가 아니게 된 이 무명의 여성은 폭력의 주체로 서게 되었다.⁵⁵⁾

54) 『소금』, 528면. 강조는 필자.

55) 김복순은 봉염 어머니가 성적 정체성, 성적 욕망(여성성)과 모성을 유지한 가운데 계급적 정체성을 확보하므로 계급성이 여성성을 전유하지도, 여성성이 계급성을 전유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김복순, 앞의 글, 334면) 봉염 어머니가 가족을 전부 잃고 실질적으로 누구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무명의 여성-소금밀매꾼으로 거듭나는 서사를 감안하자면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모성은 『소금』에서도 아주 강렬하게 남은 여성성의 흔적이다. 이상경의 지적대로, 젖을 먹여 기른 남의 자식 명수에게까지도 느끼는 강렬한 모성은 강경에 작품에 드러나는 계급 의식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이상경, 앞의 글, 375면) 성적 유린의 결과인 아이를 죽일까 하다가도 아이에 손을 대면 애착을 느끼는 이 모성은, 이상경과 김복순의 판단을 두 극으로 하는 해석 스펙트럼 안에 놓여 있다. 끝까지 공산당 안에서 아들 봉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내비치는 봉염 어머니의 ‘끈질긴’ 모성은 문제적이다. 그러나 실제 텍스트 안에서 봉식의 죽음은 기정사실로 나타났다는 점이 더 중요해 보인다. 봉염 어머니가 아들에

『소금』은 여성성과 계급성이라는 이항관계를 독특한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여성을 계급 폭력의 주체로 형상화하는 경로를 제시했다. 앵겔스적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여성이 ‘최초의 계급’으로부터 해방되어 ‘현대의 계급’으로서의 자신을 재인식하는 경로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⁵⁶⁾ 여성을 폭력의 주체로 표상하는 어떤 계급주의적 형식은 이러한 경로를 따라 마련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금』은 계급주의적 표상체계에 존재하는 공백을 채운 소설로 평가할 수 있다.

4. 맺으며

식민지 시기 계급주의 표상체계에서 여성의 폭력은 공백에 있다. 이 시기의 계급주의 문학에서 여성은 자본주의가 프롤레타리아에게 가하는 압도적인 폭력의 증거로, 즉 ‘희생양’으로 자주 소환되었다.⁵⁷⁾ 그러나 자본

거는 희망은, 여성과 계급의 관계를 가족적 비유를 통해 다루는 데 더 익숙했던 표상체계의 한계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 56) 흥미롭게도 이는 1932년 1월 김말봉이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망명녀』가 제시하는 경로와 반대된다. 이 소설에서 기생 순애는 사회주의와 접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사회현실을 계급주의적으로 의미화할 계기를 가졌으나, ‘성차를 고려하지 않는 이론인 사회주의가 ‘여성’으로서의 순애가 노동현장에서 겪었던 모순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체감하고 사회주의와 결별한다.(배상미, 『1930년대 여성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계급투쟁』, 『민족문학사연구』 58,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305-307면) 『소금』과 『망명녀』에서 여성은 ‘인간 자체의 생산’이라는 ‘최초의 노동’이 아닌 다른 노동을 통해 변용되는 존재다. 봉염 어머니는 ‘성차를 고려하지 않는’ 노동인 소금밀매를 선택함으로써(여성으로서 힘에 부친다는 묘사가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결국 봉염 어머니는 소금밀매를 해낸다) 사회주의에 완전히 합류하는 결말로 나아갔다. 그러나 성차를 배제할 수 없는 순애의 노동은 순애에게 사회주의가 설명하기 힘든 종류의 ‘여성성’을 다시 함양케 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 여성성과 계급성이라는 이항대립을 다시, 그러나 『인간문제』나 『소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환하는 방식이다.
- 57) 여성 노동자를 ‘희생자’로 표상하는 담론 구조는 1970년대의 시점에서 흥미롭게 변전된다. 1970년대에도 여공에 대한 지배적 담론 체계로 ‘희생양 담론’이 존재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무산여성을 자본주의 폭력의 ‘희생양’으로 제시했던 식민지 시기의 ‘희생양 담론’과 결이 다소

주의의 폭력에 대한 대항폭력으로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이 사유될 때, 전형적으로 그 주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젊고 강건한 육체를 가진 프롤레타리아 남성이었다. 여성은 실제 투쟁 현장에서는 그 존재가 지워지거나 마치 여흥처럼 곁들여진 부차적 존재로 표상되기도 했다. 또한 여성의 폭력은 계급주의적 맥락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비이성적 사건처럼 다뤄지기도 했다. 이처럼 여성을 아예 폭력과 무관한 존재로 밀어내는 도식들은 계급주의적 표상체계에 새겨진 불균형을 시사한다. 실제 현실 속에서 여성은 그렇게 폭력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폭력(성)이 계급주의적 표상체계 내에 진입했을 때에도, 여성은 폭력의 주체보다는 지원자로 더 수월하게 표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여성을 자본주의 폭력의 '희생양'으로 또는 프롤레타리아 폭력의 '보조자'로 표상하는 전형적 도식들은 폭력의 주체로서의 여성을 공백으로 밀어낸다.

식민지 시기 계급주의 여성 문학에서 “여성성이 기존의 남성서사와 쉽게 융합될 수 없다는 사실, 또는 이미 정착된 남성적 서사의 패턴이 지배 담론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성의 서사는 그와 같은 비중으로 서

다르다. 여성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폭력의 '희생양'(저임금·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지만, 그보다는 가족을 위한 순종적 '희생양'이기도 하다는 점이 더 부각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 '희생양 담론'은 여성노동자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기를 순종적으로 '희생'한 일 시적 출가 노동력이라는 규정을 재생산했다. 그러나 김원에 따르면 이는 노동자가 됨으로써 가부장적 가족으로부터, 또 가난한 농촌 현실로부터 '탈출'하고자 했던 여성들의 욕망을 은폐하고 억제하려는 지배 담론이었다.(김원, 『여공 1970—그녀들의 역역사』, 이매진, 2005, 194면) 1970년대에 여성노동자의 순종성을 강조했던 '희생양' 표상은, 공장노동자가 됨으로써 가부장적 지반으로부터 '탈출'하려 했던 여성의 욕망이 위협적으로 또렷해진 데 대한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의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러한 욕망은 봉염 어머니라는 형상을 통해서 결코 노골적으로 표상될 수 없었던, 그러나 그 기저에는 잠복해 있던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소금』에서 이 욕망은 분명히 표명된 적이 없으며, 봉염 어머니의 의지가 아니라 텍스트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에게 '계급성'은 '최초의 계급성'과 배제적 관계에서 감각되는 것에 가까웠다.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꿈꾸며 '계급'이 되려 하기도 했다.

사회될 수 없다는 사실⁵⁸⁾은 분명하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의 상상력이 남성 중심적 표상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또는 균열을 내며 뻗어나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발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이 여성성을 잃음으로써 계급성을 자각하는 경로를 그려 보인 「소금」은 인상적이다.

‘인간 자체의 생산’이라는 지반에 존재하는 ‘최초의 계급으로서의 여성’은 근대 사회주의 혁명의 시대에도 가족 내에서 존속했다.⁵⁹⁾ 계급주의적 현실 안에서도 “노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가족”⁶⁰⁾이었다면, 가족 속에 존재하는 여성이 계급의식을 자각하는 길은 남성보다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여성성과 계급성이 충돌 혹은 보완 혹은 종속이라는 이항관계를 통해서 주로 접근되는 경향은 바로 이 점과도 연결되어 있다. 「소금」에서 여성이 남편, 아들, 딸 등 가족을 차례차례 잃어가는 과정은 지원, 위로, 보조, 돌봄이라는, 식민지기 계급주의 표상체계 내에서도 전형적으로 ‘여성적’이라 간주된 기능을 차례차례 상실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여성은 ‘여성적’ 영역에서 내쫓겨 나옴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노동하고 착취당하는 인간으로 다시 발견하고 폭력의 주체로 선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금」은 식민지 시기 계급주의 문학 내 여성 폭력의 표상한계를 보여주면서 이를 넘어선, 즉 공백을 메운 텍스트로 읽을 수 있다.

58) 서영인, 앞의 책, 23면.

59) 가족은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 모두가 안정시키고 유지하려 온갖 노력을 다했던’(린지 저먼, 『성·계급·계급주의』, 장경선 역, 책갈피, 2003, 35면) 이데올로기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 이데올로기는 근대의 계급주의와 자본주의가 암묵적으로 공모했던 영역을 드러낸다.

60) 린지 저먼, 『성·계급·계급주의』, 장경선 역, 책갈피, 2003, 20면.

| 참고문헌 |

1. 자료

『강경애 전집』, 이상경 편, 소명, 1999.

『조선일보』

『캡프작가철인집』,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문학부 편, 집단사, 1932.

2. 논문

김복순, 『강경애의 ‘프로여성적 플롯’의 특징』, 『한국현대문학연구』 25, 한국현대문학회, 2008, 311-343면.

김연숙,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여성 작가의 정체성』,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333-358면.

나병철, 『식민지 시대의 사회주의 서사와 여성담론』,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54-189면.

배상미, 『1930년대 여성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계급투쟁』, 『민족문학사연구』 58,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283-312면.

이경림, 『자살과 살인 사이-1920년대 소설과 폭력의 새벽』, 『반교어문연구』 51, 반교어문학회, 2019, 15-48면.

_____, 『사회주의는 어떻게 폭력을 길들이는가』, 『민족문학사연구』 70, 민족문학사학회, 2019, 341-372면.

이상경, 『강경애 문학의 국제주의의 원천으로서의 만주체험』, 『현대소설연구』 66, 현대소설학회, 2017, 337-382면.

이태숙, 『사회주의 여성 문학의 계급성 문제』, 『어문학』 78, 한국어문학회, 2002, 467-488면.

이효재, 『일제하의 한국여성노동문제연구』, 『한국학보』 2권 3호, 일지사, 1976, 141-188면.

한만수, 『강경애 소금의 복자 복원과 검열 우회로서의 ‘나뉘쓰기’』, 『한국문학연구』 3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169-191면.

3. 단행본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김경일, 『한국 근대 노동사와 노동 운동』, 문학과 지성사, 2004.

김원, 『여공 1970—그녀들의 역사의』, 이매진, 2005.

서영인, 『식민주의와 타자성의 위치』, 소명, 2015.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1』, 한울아카데미, 2001.

린지 저먼, 『성·계급·계급주의』, 장경선 역, 책갈피, 2003.

메리 비어드, 『여성, 전적으로 권력에 관한』, 오수원 역, 글항아리, 2018.

루스 배러클러프, 『여공문학』, 김원·노지승 역, 2017.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현우 외 역, 난장이, 2011.

에티엔 발리바르, 『폭력과 시민다움』, 진태원 역, 난장, 2012.

우에노 나리토시, 『폭력』, 정기문 역, 산지니, 2006.

죄르지 루카치, 『역사와 계급의식』, 조만영·박정호 역, 지식올만드는 지식, 2015.

제프리 디 세인트 크로익스 외, 『계급, 소외, 차별』, 책갈피, 2017.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개정판, 김경미 역, 책세상, 2018.

<Abstract>

Limits of Representation of Women's Violence in Socialist Literature during Colonial Period —Focusing on Kang Kyŏngae's Fictions

Lee Kyungrim

Starting from questioning women's violence being underrepresented in socialistic system of represent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is paper sought to explore the limits and significance of representation of women's violence.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reviewed the imbalance between the existence pattern of real women's violence and the system of representing it, and then looked at the typical socialistic form of representing women's violence and the form of deviating from it focusing on Kang Kyŏngae's fictions.

It is a young and robust male proletariat that is typically represented as the subject of violence in socialist literature. However, this typical representation does not exactly reflect the reality that women have been present as the main agents of violence. For example, female workers have become visible to the struggle since the working class began to form in the early 1920s. However, their existence as "combatants" tended to be erased, or more typically represented as "scapegoat" in socialist literature. This unmatched needs to be read not as the result of exact reflection of the reality, but as a manifestation of the male-centeredness of the hierarchical system of representation. A typical scheme in which this system deals with violence is to divide it by gender. Women used to be represented as

"subsidiaries" of violence when men as the subject of violence.

Women's violence also appears to be hard to acquire clear meaning in the socialist context, even when it is due to class conflict. As a result, women's violence tends to be represented as if it cannot be easily converged into the proletariat Gewalt. Faced with these limitations, the *Sogŭm[salt]* portrayed a woman losing her 'femininity' and becoming self-aware of her 'classness' as she lost her family/family. In this course, women become the subject of violence as her violence converges into the proletariat Gewalt with no residual.

Key words: violence, Gewalt, women, class, socialism, femininity, proletariat

투 고 일 : 2019년 7월 31일

심 사 일 : 2019년 8월 19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9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9년 9월 26일